

“안전한 돼지, 먹어도 돼지!”

무주군,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나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11일부터 관내 일반음식점과 마트 88곳을 찾아 업주들과 방문객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인체에 무해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돼지한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에는 감염되

지 않고 무해하지만, 지난 9월 국내 발병 이후 결국, 돼지고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군에서 직접 나섰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이형재 과장은 “일단은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이날 캠페인 활동을 벌인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70°C에서 30분 이상 가열 시 사멸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먹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무엇

보다 도축장에서 검사 후 합격한 돼지만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소비자들도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시면 좋겠다고 양돈 농가뿐 아니라 돼지고기 판매 식당들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돼지고기 안전성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관내 양돈 농가들과 식당들의 피해가 없도록 소비촉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11일 관내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진안농업의 주역들, 화합의 장 열려

제24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오섭)는 11일 관내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업 생명의 숨결!! 농촌은 미래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안농업의 희망과 농업을

통한 밝은 미래를 다짐하며 나눔과 화합의 장으로 진행했다.

백문면 라인댄스, 마령면 난타공연의 흥겨운 가락을 시작으로 힘든 농사일을 잠시나마 잊고 농업인들 서로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품목별 우수회원 12명에게 군수 표창과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인단체 육성에 공로가 많은 공직자 3명에게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미래 농업 비전제시를 위한 농촌

진흥사업 성과 전시, 우수 종자 및 농·특산물 등을 전시하여 농업인과 함께 공유했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서는 한우, 돼지고기, 흑염소, 인삼, 고구마, 오미자, 사과 등 풍성한 농·축산물 시식코너를 마련하여 행사 참여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오감을 즐겁게 했다.

김오섭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해 우리 농업인들이 영향을 모아 진안농업을 위해 다함께 뛰어보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성공적인 군정 마무리 다짐

하반기 청원조회 실시

장수군은 11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영수 군수, 유태희 부군수, 실·과·원·소·읍면장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청원조회를 실시했다.

이번 청원조회를 통해 장영수 군수는 “2019년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강·약점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달리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더욱 발전하고 정진해 도약하는 ‘홍요로운 미래의 땅, 함찬장수’ 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 군수는 2020년 주요 업무 계획과 추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성공적 준비, 농민 경제 안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등을 강조했다.

다.

청원조회에서는 2019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 2019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기관표창전수 및 군정발전기여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최우수상은 기획조정실, 2019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추진기관 선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은 과수과가 수상했으며, 과수와 이현정 주무관이 군정발전기여공무원 표창, 주민복지실, 건설교통과, 산서면이 신속집행 우수부서 표창을 수여받았다.

장영수 군수는 “항상 군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잘 사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의회, 정례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는 11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20일까지 4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민생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11일 1차 본회의에서 정용주, 이우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0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규)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준열)에서 소관부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관순)에서는 13일부터 26일까지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

진안군 “친환경 목조주택으로 오세요”

아트피 치유마을 입주자 모집

진안군 아트피 치유마을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진안군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용담댐관리단)와 협약으로 43억원을 들여 정천면 봉화리 1271-1번지 일원에 단독주택(다가구) 6동 12가구 69.8㎡(21평형) 규모로 아트피 치유마을을 짓고 있다.

입주 시기는 2020년 4월 30일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아트피안심학교(조림초 병설유치원, 조림초, 부귀중)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아트피환아

가족으로 진안군으로 전입 및 보호자 동반거주는 필수 사항이다.

신청은 12월 9일까지 온라인접수(진안군 보건소 홈페이지, 방문·우편접수 불가)를 통해 가능하며, 12월 11일 입주자 선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금주 보건소장은 “아트피 치유마을이 조성되면 현재 아트피안심학교로 지정된 조림초와 부귀중학교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트피 환아와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노후 된 건물번호판 정비

무주군은 빗바람, 훼손 등으로 노후된 관내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번호판 정비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1만2749개 중 낡거나 훼손된 472개가 대상이다.

단,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건물번호판은 무상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원인가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군은 정비에 앞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는 스마트KAS(현장조사 모바일)를 도입해 현장에서 건물번호판 이상 유·무 점검과 사진

등록을 진행해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토지관리 팀장은 “도로명주소가 편리하게 활용되고 거리 미관도 더불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건물번호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건설교통과 직원 배식 봉사

장수군 건설교통과 배식봉사단(약칭 건배봉사단)이 노인·장애인 복지관 식당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봉사활동을 펼친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건설교통과 소속 직원들로 이뤄진 배식봉사단은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 장수군 노인 장애인 복지관 식당에서 주민들의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돕고 있다.

봉사활동은 전 직원 1/2명씩 참여하며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사준비, 배급, 말뚝무 활동을 진행한다.

문우성 과장은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우리 주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 등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함찬 장수건설을 위해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